

# 막말 조정의 학습원과 공가사회의 ‘정치화’

김형진

## 1. 조정체제의 변혁과 학문의 역할

에도시대를 통해 막부의 강한 통제권 아래 놓여 있던 교토의 천황과 조정은 1858년<sup>1)</sup>의 조약칙허 문제를 계기로 정치의 초점으로 ‘부상’한다. 그런데 천황과 조정의 이른바 ‘부상’을 그 내부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근세 조정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천황이 중심이 되지 않았다. 섭정(攝政)·관백(關白) 직을 독점하고 있던 후지와라 씨(藤原氏) 계통의 5섭가(五攝家)가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는 더 길게 보면 헤이안 중기 이래의 ‘섭

---

**김형진** 고려대 한국사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서울대 동양사학과 석사과정에서 일본근대사를 전공하고 있다. 막말 천황가·조정 정치의식 형성의 중요한 원인이 학문의 활성화에 있다고 보고, 이를 18세기 후반 이래의 존왕 사상이나 대외 위기의식 확산과 관련지어 연구하고 있다. 논문으로 「호레키 사건(1756~58)과 학문이 촉발한 정치적 ‘자각’: ‘근세성’과 ‘막말성’이 교차하는 조정」(2012)이 있으며, 2013년 제10회 한일차세대학술포럼에서 「닌코 천황 재위기(1817~46) 궁중의 역사서 會讀」을 발표한 바 있다.

1 본문 내용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이하의 연도는 모두 기본적으로 일본 연호가 아닌 서기로 바꾸어 표기한다. 다만 월, 일은 서력으로 변환하지 않고 당대 일본 역법상의 날짜를 그대로 표기한다.

관정치'의 연속이기도 했다.<sup>2</sup> 그런데 1858년의 조약칙허 문제를 계기로 개국에 반대하는 천황의 '양이'(攘夷) 지향이 전면에 표출됨과 동시에, 중·하급 공가까지 포함한 당상공가(堂上公家) 일반이 정치적 견해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현상이 나타난다.<sup>3</sup> 애초에 섭관가를 중심으로 한 조정 상층부는 조약의 칙허를 내정했었다. 그러나 천황의 반대나 특히 열참(列參)이라는 형태로 드러난 중하급 공가들의 유례없는 정치적 집단행동이 조정의 방침을 칙허 반대로 바꾸게끔 만들었다.<sup>4</sup> 막부는 어쩔 수 없이 천황의 칙허를 얻지 못한 채 미국과의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것을 계기로 막부에 대한 격렬한 반발과 천황·조정에 대한 존왕양이파의 정치적 공작이 본격화했음은 잘 알려져 있다.

이노우에 가쓰오는 왕정복고를, “섭관체제(攝關體制)라는 ‘앙시앙 레짐’의 종말”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sup>5</sup> 즉, 통상조약 칙허 문제를 계기로 하는 막말의 정치적 격동은 조정 내부에서 관백과 5섭가를 중심으로 편성된 근세적인 체제, 더 길게 보면 헤이안 중기 이래의 섭관체제의 종식으로 이어진 것이다.

막부라는 일본 전체의 ‘앙시앙 레짐’에 대응되는, 섭관체제라는 조정 내부의 ‘앙시앙 레짐’의 종식은 그 내부에서의 정치의식<sup>6</sup> 비등이 원인이었다.

- 2 섭관가는 공가의 최상위 자격(家格)으로서 섭정·관백 직에 임명될 수 있는 가문이다. 여기서 섭정(셋쇼)은 천황이 미성년이거나 사고가 있을 때 그를 대신하여 정무를 총괄하는 직책이며, 관백(간파쿠)은 천황을 보좌하여 정무를 집행하는 직책이다. 섭정은 원래 쇼토쿠 태자 등 황족의 일원이 임명되는 직책이었으나 세이와 천황(清和天皇, 재위 858~876) 때 후지와라 씨 북가(北家)의 요시후사(良房)가 섭정이 되고, 그 후계자인 모토쓰네(基經)도 섭정에 임명되었으며 또 사상 최초로 관백을 역임하게 되었다. 이후로 그 적류(嫡流) 계통이 계속해서 섭관 직에 보임되었다. 섭관이 적류는 가마쿠라 시대에 고노에(近衛)·구조(九條)·니조(二條)·이치조(一條)·다카쓰카사(鷹司)의 다섯 가문으로 나뉘었고, 이 오섭가가 에도 시대까지 이어졌다. 『世界大百科事典』 第2版; 『大辞林』 第三版.
- 3 그러한 국면의 개막을 상징하는 것이 조정 상층부의 통상조약 칙허 방침에 중하급 공가 다수가 반발하여 궁중과 관백의 저택에 집단으로 몰려가 항의한 1858년 3월 12일의 공경(公卿) 88명 열참(列參) 사건이다.
- 4 이원우, 「孝明天황과 ‘통상조약칙허’ 문제」, 『역사학회 하계 심포지엄 자료집』, 2010.
- 5 井上勝生, 『幕末維新政治史の研究: 日本近代国家の生成について』, 東京: 塙書房, 1994.
- 6 ‘정치의식’(political consciousness)은 “정치체제 속에서 기능하는 감정이나 관심, 그 결과로서의 의견이나 태도, 신념 등을 체계화한 것의 총칭”으로 정의된다. 정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21세기 정치학대사전』, 2010. 이하 이 글에서의 ‘정치의식 형성’이나 그에서 파생되는 ‘정치화’(politicize, politicization)의 개념은 이러한 의미로 사용됨을 밝혀둔다.

18세기 후반 이래 진전된 천황가·공가사회에서의 학문의 활성화가 ‘치자’(治者)로서의 아이덴티티 자각, 이에 따른 정치의식의 형성을 촉진했다.<sup>7</sup> 고대 조정의 대학료(大學寮) 폐절 이래 공가를 대상으로 개설된 첫 공식적 교육기관으로 일컬어지는 학습원(學習院, 1847년 개강)은 그러한 움직임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후의 일본학계에서 근세·막말기의 천황·조정 연구 자체가 뒤늦게야 활성화되었기에 교육과 학문의 문제 또한 아직 충분히 규명되었다고는 하기 힘들다. 학습원을 다루는 전후의 연구들도 학습원 자체의 운영 실태보다는 주로 조정 내 권력의 변동, 특히 1862~63년의 그것과 관련되어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sup>8</sup>

학습원이 공가의 정치의식 각성과 조정의 ‘부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이미 오쿠보 도시아키(大久保利謙)를 비롯한 관련 연구자들이 누차 지적해 온 부분이다.<sup>9</sup> 그렇지만 ‘학습원이 공가의 정치의식 각성과 조정의 부상에 기여했다’는 단순하고 당연한 주장이 반복되어온 감이 없지 않다. 학습원이 조정의 ‘정치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자체는 사실이지만, 그 과정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관계성은 보다 복잡하다. 학습원이 결과적으로 공가사회의 ‘정치화’에 기여하게 되었지만, 섭관가로 대표되는 조정 상층부는 애초에 그것을 설립하는 단계에서 결코 공가사회의 정치의식 분출이나 막부에 대한 저항을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 7 천황가·조정에서의 학문의 활성화가 ‘군주의식’을 상기했다는 논의로서는 藤田覚, 『近世天皇論: 近世天皇研究の意義と課題』, 大阪: 清文堂出版, 2011; 藤田覚, 『幕末の天皇』, 東京: 講談社, 1994가 대표적이다. 다만 ‘치자로서의 아이덴티티’라는 표현은 이러한 기존 연구를 참조하여 필자가 새롭게 쓰는 표현임을 밝혀둔다.
- 8 家近良樹, 『幕末期の朝廷に新設された国事審議機関』, 『幕末政治と倒幕運動』, 東京: 吉川弘文館, 1995; 高山嘉明, 『幕末期学習院をめぐる政治動向』, 『日本歴史』, 第726号, 2008; 吉田昌彦, 『学習院建言制度の成立と「言路洞開」』, 九州大学大学院比較社会文化学府, 『比較社会文化』 17, 2011; 吉田昌彦, 『学習院建言制度と勤務規定』, 『九州文化史研究所紀要』 (54), 2011; 吉田昌彦, 『政治施設としての学習院の成立』, 『九州文化史研究所紀要』 (52), 2009; 仙波 ひとみ, 『国事参政等関係史料と文久三年の学習院』, 明治維新史学会 編, 『明治維新と史料学: 明治維新史研究 9』, 東京: 吉川弘文館, 2010.
- 9 大久保利謙, 『幕末京都の学習院』, 『大久保利謙歴史著作集 4』, 東京: 吉川弘文館, 2007; 佐竹朋子, 『学習院学問所の果たした役割』, 『近世の天皇・朝廷研究』 2, 2009; 佐竹朋子, 『学習院学問所設立の歴史的意義』, 『京都女子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研究紀要: 史学編』 (2), 2003. 전전(戰前)의 논의들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본고에서는 학습원의 설립 과정과 교육 이념·운영 실태 등을 서술하고, 이어서 학습원이 공가사회의 ‘정치화’를 촉진한 주된 요인들을 분석한다. 특히 ‘정치화’에 대한 학습원의 역할이 애초에 학습원을 설립했던 조정 상층부의 의도 및, 당시 상층부까지 포함하는 조정 일반에 수용되고 있던 존왕 사상과 복합적인 관계에 있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 2. 학습원 설립 이전: 학문의 점진적 활성화

학습원은 1842년에 설립이 발의되고, 1845년에 막부의 인가를 받아, 1847년에 개강하게 된다. 그런데 이미 18세기 말의 고카쿠(光格) 천황 재위기 무렵부터 조정에서는 학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교육기관 설립의 시도 또한 보인다. 학습원 설립의 전 단계로서 우선 18세기 말부터 1842년 이전까지의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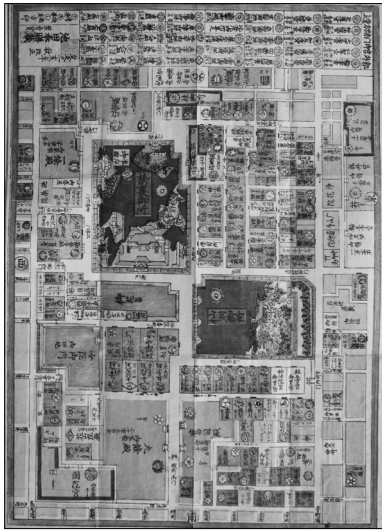
간세이(寛政) 연간(1789~1801) 이래 공가사회에는 소규모의 학습회가 존재했다.<sup>10</sup> 간세이 이전에도 학문을 좋아하는 공가가 자택에 시강(侍講)을 초빙해 학습회를 연 사례가 있지만, 학습회가 항례화되고 있는 것은 간세이 연간 이후라고 평가된다.<sup>11</sup> 여기에는 학문을 좋아하던 당시의 고카쿠 천황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2</sup> 고카쿠에 이어 아들인 난코(仁孝) 천황이 재위하던 1820년대 이후에는 궁중에서 역사서의 회독(會讀)<sup>13</sup>이 정례화된

10 덴포(天保) 연간까지의 공가의 학습회에 대한 이하의 논의는 주로 佐竹朋子, 2003에 의거했다.

11 당시의 학습회는 주로 옛 조정의 의식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비롯되어, 『延喜式』(엔기식)을 비롯하여 헤이안 시대 이래의 의식서나 궁경의 일기를 강독하며 선례로서 참조하려는 목적이었다. 고대 조정의 의식에 대한 관심 고조는, 1788년에 소실된 내리(内裏)의 복고적 조영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된다. 藤田覚, 『近世政治史と天皇』, 東京: 吉川弘文館, 1999, 260쪽; 佐竹朋子, 「学習院学問所設立の歴史的意義」, 62쪽.

12 후지와라 사다모토(藤原貞幹)의 서한에 이러한 언급이 있다. “지금의 천황은 학문을 좋아하셔서, 근습(近習)의 당상(堂上)들에게 윤독을 분부하셨다. 이는 각별한 조치로서…”(松尾芳樹, 「藤原貞幹書簡抄『蒙齋手簡』」, 45; 佐竹朋子, 「学習院学問所設立の歴史的意義」, 64~65쪽에서 재인용).

13 여러 명의 사람이 한 장소에 모여 같은 책을 읽고 그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다(『大辭林』第三版). 다른 말로는 윤독(輪讀)이라고도 한다.



〈그림 1〉 막말 당시 교토의 공가 마치(公家町) 지도. 현재 고소를 제외한 공가 저택은 대부분 사라지고, 교토 교엔(京都御苑)으로 공원화되어 있다. 중앙부보다 조금 북쪽에 고소(御所)가, 가장 남쪽에 당시 관백을 맡던 다카쓰카사(鷹司) 가문의 저택이 있다. 출처: 「内裏図」, 文久3年発行 [http://shobundo.jp/blog/shopping/2002/06/post\\_544.html](http://shobundo.jp/blog/shopping/2002/06/post_544.html), 2013. 5. 18.

다. 그리하여 24사·『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과 같은 중국의 역사서, 그리고 『일본서기』(日本書紀)를 필두로 한 고대 조정의 관찬정사인 육국사(六國史)가 학습된다. 궁중의 역사서 회독 시행으로 인해 공가들이 그 예습 등의 목적으로 자체적인 학습회를 여는 현상도 나타난다.<sup>14</sup>

덴포 연간(1830~44)이 되면 학습회에 기반한 공가사회 내부의 ‘학적 네트워크’<sup>15</sup> 형성이 현저해진다. 훗날 이른바 존왕양이파 공가의 리더로 알려지는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의 부친 산조 사네프무(三條實萬)는 공가사회 ‘학적 네트워크’ 형성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었다. 그의 일기를 보면 당시 입신출세를 바라고 교토로 몰려든 지식인들이 공가사회에 인맥을 만들기 위해 분주하던 상황이 나타나 있다.<sup>16</sup> 즉 교토에 몰려들던 존왕론 성향의 지식인들이 공가의 시장 등을 맡으며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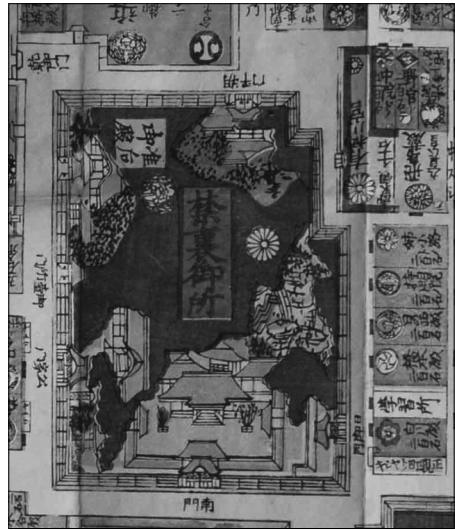
그런데 이 무렵까지도 공가사회를 위한 공식적인 교육기관은 부재했

14 궁중의 역사서 회독에서는 난코 천황의 명으로 육국사의 하나인 『일본후기』(日本後紀)를 교정하는데, 난코 천황의 지시를 받아 다른 공경에게 『일본후기』의 수정을 지시한 것이 바로 관백 다카쓰카사 마사미치였다. 野宮定功, 「定功卿記」; 佐竹朋子, 「学習院學問所設立の歴史的意義」, 72쪽. 조정에서의 육국사 학습에 대한 관백의 협조는 18세기 중반의 호레키 사건과 대조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논의한다.

15 ‘학적 네트워크’의 개념은 朴薰, 「幕末政治變革と〈儒教的政治文化〉」, 『明治維新史研究』 第8号, 2012, 31쪽에 의거했다.

16 “간토로부터 상경한 유사(儒者)···가게야마 레타로(影山礼太郎)는 연령은 26살로, 학업을 열어 모리 데라 와카사노가미(森寺若狭守=산조 가의 가신)가 그 문하에 들어가, 그 유서를 갖고서 우리 가문과 바라는 바의 뜻을 말했는데···이름을 팔 목적의 무리···지만 사람됨이 비상한 유사(儒士)이기 때문에 三位中將(사네프무의 아들)의 교도(敎導)로 고용했다.”(『三條實万日記』 天保 13년 8월 28일조; 佐竹朋子, 「学習院學問所設立の歴史的意義」, 78쪽에서 재인용).

다.<sup>17</sup> 일찍이 오사카의 유학자 나카이 지쿠잔(中井竹山, 1730~1804)은 저서 『초모위언』(草茅危言, 1789년 성립)에서 조정의 교육기관 부재를 문제 삼은 적이 있다. 8대 쇼군 요시무네(吉宗, 재직 1716~45)의 시대 이후 서민층에까지 학문이 확산되었으며 오사카에서도 쇼군의 허가로 그 자신이 학주(學主)를 맡기도 한 회덕당(懷德堂)이 건립되었으나, 유독 경사(京師=교토)에는 아직껏 학교가 세워지지 않고 있기에 “애석해야 할 일”이라고 적고 있다.<sup>18</sup> 18세기 말 이후 일본사회 전체적으로 학교 설립이 활성화되는 것과 아울러,<sup>19</sup> 조정의 교육기관 설립의 시도 자체도 간헐적으로 나타난다. 안에이(安永) 연간(1772~80)에 섭가의 니조 하루타카(二條治孝, 1754~1826)가 유학자 니시요리 세이사이(西依成齋, 1702~97)에게 학교 건립의 일을 상담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다. 역시 공경인 다카쓰지 다



〈그림 2〉 학습원의 위치. 〈그림 1〉의 고소 부분을 확대한 것. 고소 밑에 ‘학습소’(學習所)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히노고문도오리(日御門通り)를 건너, 바로 좌측 상단에 보이는 것이 고소(御所)로 들어가는 건춘문(建春門)이다.

출처: 「内裏図」, 文久3年発行 [http://shobundo.jp/blog/shopping/2002/06/post\\_544.html](http://shobundo.jp/blog/shopping/2002/06/post_544.html), 2013. 5. 18.

17 이에 대해서 특히 전전(戰前)에 이루어진 논의들은 조정의 부상을 경계한 막부가 공가의 교육에도 제약을 가했기 때문이라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막말 학습원에 대한 전전의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女子学習院 編, 『女子学習院五十年史』, 1935; 學習院 編, 『學習院史』, 1928; 本多辰次郎, 「學習院創建及其沿革」, 『史學雜誌』, 第26編 4号, 1915. 그러나 실제 막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가사회의 교육을 ‘억압’하려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른바 왕정복고 사관을 벗어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근세 일본에서 공가가 갖는 경제력이라는 것이 워낙 낮았기에 교육에까지 투자를 쏟을 여지가 생기기 힘들었던 것도 원인이다. 천황가와 100여 개의 당상공가 가문의 영지를 모두 합쳐도 15만 석을 넘지 않았다. 마리우스 젠슨, 김우영 외 역, 『현대일본을 찾아서』 1, 이산, 2006, 157쪽. 사쓰마 번 하나(1634년 表高 72만9000석)(朝尾直弘 編, 『角川新版日本史辞典』, 東京: 角川学芸出版, 1997, 443쪽)와 비교해도 매우 적다.

18 中井竹山, 「學校の事」, 『草茅危言』 第2(商), 懷德堂記念館, 1942, 34~35쪽.

19 당시의 상황을 빚낸 ‘교육 폭발의 시대’라는 표현도 있다. 朴薫, 『幕末政治変革と(儒教的政治文化)』, 2012, 22쪽. 각 번의 번교(藩校) 설립 시기는 대부분 덴메이(1781~88)와 간세이(1789~1801) 연간 이후에 해당한다. 朝尾直弘 編, 『角川新版日本史辞典』, 1337~1342쪽.

네나가(高辻胤長)가 니조의 유지(遺志)를 받들어 학교 설립을 꾀하여 나카이 지쿠잔에게 상담했던 일이 역시 앞에서 언급한 『초모위언』에 수록되어 있다.<sup>20</sup>

천황의 의향도 있었다. 고카쿠 천황은 고대 조정의 대학료(大學寮)를 상기하면서, 그러한 교육기관을 재흥시켜 공가들이 효제충신(孝悌忠信)의 이념을 체득케 하려는 희망을 품었다고 한다.<sup>21</sup> 닌코 천황 또한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자제들을 교육시킬 여력이 부족한 중하급 공가의 풍의(風儀) 타락을 깊이 우려하고 있었다. 공가의 풍의에 대한 우려는 당시의 조정 상층부에서 널리 공유되고 있었다. 산조 사네쓰무가 1843년 10월에 남긴 일기에서 “누구나 곤궁함이 지극하여 염치를 모르기에 심히 탄식할 만하다”고 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다.<sup>22</sup> 당시 상층부 공가들은 비교적 윤택했기에 집에 유학자 등을 초빙하여 자제를 교육시키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른바 중하급 공가들은 학문과 교육에 신경을 쓸 여력이 충분치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sup>23</sup>

요약하면, 18세기 후반 이래 재위한 고카쿠·닌코 두 천황은 학문의 부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교육의 부재로부터 비롯되는 공가사회의 기풍 쇠락에 대한 우려가 조정 상층부에서 널리 공유되고 있었으며, 교육기관 설립 시도들 또한 간헐적으로 있어 왔다. 즉, 이 시기의 궁중과 공가사회에서는 열악한 경제적 여건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전 시기에 비해 학문에 대한 관심과 열기, 그 필요성에 대한

20 “왕년에 다카쓰지 고몬(高辻黃門) 공이 경사에 학교가 폐절하여 있음을 깊게 탄식하여 고대의 규칙에 준거하여 관가(管家)의 학을 설치하여…동쪽의 뜻(東旨=막부의 의향)을 여쭙 따름이었다. 이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만일 관의 허가를 얻어 건학에 이룬다면, 그 규모·제도는 어떠한가 하는가 라며 이 또한 내밀히 헤아려 생각함이 있으셨는데…그렇지만 그 무렵 간토 정부(=막부)는 문사(文事)에 요락(潦落)했기에…심히 탄식할 만하다”(中井竹山, 「學校の事」 『草茅危言』 第2(商), 懷徳堂記念館, 1942, 35쪽). 교토에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데 막부의 동의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 표현하는 한편, 막부를 비판하고도 있는 부분이기도 주목된다.

21 공경 하시모토 사네히사(橋本実久, 1790~1857)의 회상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 「橋本実久日記」 弘化二年十一月二十七日, 『仁孝天皇實錄』 4卷1109頁.

22 「三條実方日記」; 大久保利謙, 「幕末京都の学習院」, 20쪽에서 재인용.

23 대개 교토 시중의 유자(儒者)에게 가서 배우거나 데라코야(寺子屋) 등에 다니는 정도였다고 한다. 大久保利謙, 「幕末京都の学習院」, 19~20쪽.

자각이 고조되고 있었다. 1842년의 학습원 설립 발의는 이러한 요인들이 누적되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 3. 학습원의 설립과 운영: '풍의 쇄신'의 지향

학습원의 강의운영 방침에서는 명목상으로 화한(和漢) 학문의 병행이 규정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로 더 비중이 두어지던 것은 한학, 정확히는 유학의 학습이었다. 조정 상층부는 학습원 설립을 발의하는 단계에서부터 그 최우선 목표를 쫓은 공가층의 풍의 쇄신, 즉 올바른 인성의 함양과 나태·유흥 풍조의 억제에 두었다. 학습원 교육과정에서 유학이 중요시됨은 그것이 공가의 '인성 교육'을 위해 가장 적절한 이념적 수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하 학습원의 설립 과정과 교육에서 표방된 이념, 강의의 운영 과정 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1) 설립의 과정

1842년 10월 17일, 조정에서는 교토 쇼시다이(所司代)<sup>24</sup>를 궁중으로 소환하여 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뜻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근래에 당상의 풍의가 각별히 좋지 않아서, 신분에 걸맞지 않은 유흥을 하고, 비속한 옷을 입고, 저자에 몰래 드나드는 자들도 있다는 풍문이 종종 들려오기에 제지를 가했으나, 어찌되었든 잦아들지 않아서…관백께서도 진실로 송구스럽게도 아침저녁으로 깊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옛적에는 대학료·사성학교(四姓學校)<sup>25</sup>도 있었으나 지금은 폐절되었고…당상의 곤궁한 자들은 교사를 초청하

24 교토에 주재하며 교토의 경비, 조정·공가의 감찰, 교토·후시미(伏見)·나라(奈良) 마치부교(町奉行)의 관리, 긴키 전역의 소송 재결, 서부 지역 다이묘의 감찰 등을 관장하던 에도 막부의 직책이다. 1867년에 폐지되었다. 『大辭林』 第三版.

25 조정의 유력 씨족이 대학료와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설립한 권학원(勸學院)·학관원(學館院)·장학원(獎學院)·홍문원(弘文院)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공적 교육기관인 대학료에 대비하여 일종



기도 어려우며…불학(不學)·문맹의 무리들이 많아지고 있기에, 적어도 습학소(習學所)를 [세울 것을] 분부해서 젊은 무리의 사람들이 매월 두세 번씩 교수를 받으면 고아하고 단정하고 독신하게 될 것으로서…위의 사정으로 연년 [그] 용도의 금액을 쌀 오륙백 석 정도 보내시면…자연히 풍의도 개선되고 학문을 연구함이 있게 되어…<sup>26</sup>

학습원 설립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반드시 인용되는 이 사료에서는, 우선 젊은 공가들의 풍기가 문란해지고 이를 단속하기 힘들다는 상황을 거론하며, 그 원인을 공가들이 곤궁하여 강사를 초빙할 여력이 없기에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따라서 ‘습학소’를 설립하여 젊은 공가들을 교육시키면 상황이 개선될 것이며, 이를 위해 막부가 비용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막부의 로주(老中)였던 미즈노 다다쿠니(水野忠邦)는 이에 찬성했으나, 그가 상지령(上知令)<sup>27</sup>에 대한 반발로 1843년 윤 9월에 로주에서 해임되었으며 1844년 5월에 에도 성 혼마루(本丸)가 화재로 소실되는 일까지 겹쳐 학습원 설립에 대한 막부의 인기는 지체되었다. 관백 다카쓰카사 마사미치(鷹司政通)는, 고산케(御三家)의 하나로서 막부도 무시할 수 없던 인물이자 그와 혼척 관계에 있던 미토(水戸)의 도쿠가와 나리아키(徳川齊昭)에게 1844년 3월 서한을 보내<sup>28</sup> 도움을 구하기도 했다.

1845년 10월 조정에서는 다시금 무가 측에 설립 인가를 재촉했고 미즈

의 ‘사립’ 교육시설로 평가되기도 한다. 공식적으로 대학벳소(大學別曹)라고 묶여 칭해졌으나 실제 대학료의 통제 하에 있던 것은 아니었다. 『世界大百科事典』 第2版; 『大辭林』 第三版.

26 『統泰平年表』, 『仁孝天皇実録』 4卷 1112頁.

27 ‘上知’(아게치)란 막부가 다이묘나 하타모토의 영지(知行地)를 행정상의 필요로 인해 몰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지령이라 하면 덴포 개혁 말기인 1843년 6월에 막부가 에도와 오사카 성 사방 10리 내의 다이묘와 하타모토의 사령(私領)을 거둬들인 것을 말한다. 아편전쟁 이후 대외적 위기감 속에서 에도, 오사카 성 주변 지역의 복잡한 영지 관계를 정리하여 지배를 원활히 하고 방어 태세를 견고히 구축하기 위함이었다. 『世界大百科事典』 第2版.

28 “젊은 무리들이 효제충신을 알게 되면, 자연히 삼가는 태도도 깊게 되어 도움이 됨이 있으면 그렇게 심하게 좋지 않은 소문(不外聞)도 없으리라 생각하여 이 학습소를 세워서 가르치려고 생각하게 되어 제의드립니다…”(本多辰次郎, 『学習院創建及其沿革』, 408~409쪽에서 재인용).



〈그림 3〉 교토 교엔(京都御苑) 내의 다카쓰카사 가 저택 터에 세워져 있는 표시석



〈그림 4〉 고소의 출입문 중 학습원과 가장 인접한 건축물의 과거 사진

노의 후임인 아베 마사히로(阿部正弘)가 이를 받아들여, 마침내 이 해 11월 24일 막부의 승인이 늦게나마 조정에 전달되었다. 막부 측 답서는 학습원의 기물이나 소요비용을 될 수 있는 한 간소하게 하고 건물의 조영에도 기존에 천황가가 가진 이궁(離宮)이나 수학원(修學院)에서 쓰지 않는 부분을 해체해서 부재로 충당하라는 등 재정의 절약을 강조하고 있다.<sup>29</sup> 상지령 문제로 인해 로주 미즈노가 실각하는 등 당시 막부에서 재정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민감한 사안이었기에 조정의 새 교육기관 설립을 돕기가 여의치는 않았다. 하지만 천황가의 이궁 일부를 떼어내서 건축자재로 보태게 하면서까지 비용의 절감을 강조하는 것은 막부가 학습원 설립 자체를 결코 적극적으로 환영하기는 어려웠음도 짐작케 한다.

막부의 설립 인가 이후 학습원 건립 사업은 급물살을 탄다. 막부의 인가가 전달되고 겨우 사흘이 지난 11월 27일에 바로 학습원에 관련된 인사가 이루어진다.<sup>30</sup> 조정이 학습원의 설립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었음을 알 만하다. 1845년 12월에는 건물이 기공되었으며 공사는 막부가 담당했다.<sup>31</sup> 이

29 學習院 編, 『學習院史』, 6~7쪽.

30 산조 사네쓰무(三條實萬)가 학습원전주(學習院傳奏)에, 가데노코지 스케이시(勘解由小路資善, 1778~1848)와 히가시보조 도키나가(東坊城聡長, 1800~1861) 두 공경이 학두 겸 봉행(學豆兼奉行)에, 이어서 유식학생(有識學生)으로 고조 다메사다(五條為定)와 구와바라 요리나가(桑原順長)가 임명되었다.

31 학습원 건물은 고소(御所)의 건춘문(建春門) 밖, 모모조노(桃園) 천황의 생모인 가이메이문인(開明門院)의 저택 터에 세워졌다. 〈그림 1〉, 〈그림 2〉 참조.

듬해인 1846년 1월 26일, 학습원 설립에 진력했던 닌코 천황이 사망하고 2월 13일에 아들인 고메이(孝明) 천황이 제위에 올랐다. 이 해 윤 5월에는 건물이 준공되고 같은 달 28일에는 조정 측에 인도되었다. 8월 28일에는 지진제(地鎮祭)를 거행했다.

1846년 10월 이후, 천황과 다카쓰카사 관백, 이하 여러 공경들이 잇따라 학습원의 교육을 위해 도서를 기부한다.<sup>32</sup> 또한 무가 측에서도 쇼군과 교토 쇼시다이(京師)가 서적을 기부했다.<sup>33</sup> 여기서는 유학 경전과 중국의 역사서가 중심이 되고 있지만 일본의 율령국가 시기에 편찬된 육국사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다카쓰카사 마사미치 관백이 『고사기』와 『일본서기』를 기부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육국사는 고대 조정에서 편찬된 정사로서, 천황가와 조정이 일본의 통치자로서 갖는 정통성이 강조되어 있다. 막부가 통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근세의 조정에서 이러한 성격의 텍스트가 결코 활발히 학습되기는 힘들었던 듯하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호레키(寶曆) 연간(1751~1763)에 일어난 이른바 호레키 사건이다. 야마자키 안사이(山崎闇齋)의 가르침을 이어

32 고메이 천황이 『오경고주』(五經古註), 『사서신주』(四書新註), 『사서대전』(四書大全), 『사서집해』(四書集解), 『감본사서』(監本四書), 『고문효경』(古文孝經), 『사서몽인』(四書蒙引), 『효경대의』(孝經大義), 『두주좌전』(杜註左傳), 『조주맹자』(趙註孟子), 『논맹고의』(論孟古義), 『칠경맹자고문』(七經孟子考文), 『자치통감』, 『통감강목』, 『대당육진』(大唐六典)과 『정관정요』(貞觀政要) 등 경전, 사서를 아우르는 각종 한적(漢籍)과 아울러 고대의 정사인 『일본서기』(日本書紀)·『속일본기』(續日本紀)와, 『엔기식』·『영의해』(令義解) 등 고대 조정의 법령·의식 관련서를 기부하고 있다.

관백 다카쓰카사는 『고사기』(古事記), 『일본서기』, 『일본몬토쿠천황실록』(日本文德天皇實錄), 『일본삼대실록』(日本三代實錄), 『일본일사』(日本逸史), 『명만력관 21사』(明萬曆觀二十一史) 등을 기부했다. 이 외에 아리사가와노미야 다카히토(有栖川宮熾仁) 친왕과 우대신 구조 히사타다(九條尚忠), 내대신 고노에 다다히로(近衛忠熙), 대납언 이치조 다다카(一條忠香), 산조 사네쓰무, 도쿠다이지 사네카타(德大寺實經), 히로하시 미쓰나리(広橋光成), 보조 도시아키(坊城俊明), 고조 다메사다(五條為定) 등 도서를 기부한 것은 상층부 공가 일반을 망라하고 있다.

학습원 개강식 전날인 1847년 3월 8일 고메이 천황은 추가로 『오경정문』(五經正文), 『오경고주』(五經古註), 『사서신주』(四書新註), 『오경대전』(五經大全), 『논맹고의』(論孟古義)를 하사하고 있다.

33 쇼군 도쿠가와 이에요시(徳川家慶)가 『십삼경주소』(十三經註疏), 『사기』, 『한서』, 『강희자전』(康熙字典)을 기부했으며, 교토 쇼시다이 사카이 다다요시(酒井忠義)가 『십삼경주소』, 『대일본사』, 『자치통감』, 『주자문집』(朱子文集) 등을 기부하고 있다. 이 외에 쓰키부케(附武家)인 아케라 모세이(明樂茂正), 나이토 다다아키(内藤忠明)가 『삼례의소』(三禮義疏), 『역사강감』(歷史綱鑑)을 기부하고 있다. 이상의 도서 기부에 대해서는 本多辰次郎, 「学習院創建及其沿革」, 417~418쪽을 참조했다. 도서명의 한자 표기에 오늘날 한국에서의 일반적 표기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원문의 표기를 존중했다.

받은 스이카(垂加) 신도가(神道家)인 다케노우치 시키부(竹内式部)가 교토에 사숙을 열었는데, 많은 소장공경들이 그 문하에 들어가 존왕론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들 소장 공경이 시키부의 가르침을 좇아서 천황에게 『일본서기』 신대권(神代卷)의 진강을 행했는데 조정 내 존왕 사상의 발호를 우려한 섭관가가 막부와 협력하여 이들을 제재한 것이 호레키 사건이다.<sup>34</sup> 그런데 사건 당시 관백과 섭관가가 소장공경들의 『일본서기』 진강을 제지한 것에 비해, 1820년대 이후 궁중의 역사서 회독에서는 관백 다카쓰카사 마사미치가 천황을 보좌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한술 더 떠 학습원의 교재로 『일본서기』와 『고사기』까지도 기부하고 있다. 다카쓰카사 마사미치 개인은 막말에 대두한 이른바 존왕양이파와는 정치적으로 거리가 있는 인물이다. 그는 훗날 통상조약 칙허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기에 안세이(安政)의 대옥(大獄)에서 막부의 처벌 대상이 되었지만, 조약칙허 요청이 교토에 전달된 1858년 초기까지만 해도 개국 입장에 동조하고 있던 친막부 성향의 인물이었다. 친막부 성향의 다카쓰카사 관백마저도 호레키 연간의 섭관가와 달리 공가들의 육국사 학습에 거의 전적으로 협조했다는 것이나 막부 측에서 이를 특별히 문제 삼은 흔적이 없다는 사실은, 학습원이 설립되는 시점의 시대적 분위기나 조정 공경들의 의식이 18세기까지와 비교하면 많이 달라져 있었음을 보여준다.<sup>35</sup>

물론 학습원의 공식적 교육 이념이나 강의의 시행에서는 어디까지나 유학이 우선되고 있었으며, 오류의 가르침을 통해 당상공가들의 풍의를 바로잡을 것이 지향되었다. 육국사나 국학의 학습은 공식적 이념의 면에서는 유학·한학에 밀려나 있었으며, 존왕론이 공가사회에 미친 영향이 정치적으로

34 호레키 사건에 대해서는 김형진, 「호레키 사건(寶曆事件, 1756~58)과 학문이 촉발한 정치적 '자각': '近世性'과 '幕末性'이 교차하는 朝廷」, 『서울大學校 東洋史學科 論集』 36, 2012; 国史大辞典編集委員会 編, 『国史大事典』, 東京: 吉川弘文館 9卷 136쪽, 12卷 661~662쪽 등을 참조.

35 아울러 쇼시다이인 사카이 다다야키가 『대일본사』를 기부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미토 번에서 편찬된 『대일본사』는 천황가가 둘로 갈린 남북조 시대에 무로마치 막부와 맞선 남조를 정통으로 서술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한 역사서를 무가 측에서 공가의 학습원 교육을 위해 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5〉 학습원 설립이 진행되던 때 재위 중이던 닌코 천황. 메이지 천황의 조부이다.

드러나기까지는 아직 세월을 더 기다려야 했다. 다음의 2)에서는 학습원에서 공식적으로 표방된 교육 이념이나 강의의 운용 실태 등을 주로 개강 초기를 대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2) 교육 이념과 운용 실태

1847년 3월 9일, 마침내 학습원의 개강식이 거행되었다. 개강을 6일 앞둔 3월 3일에 이와노 모토에타(石野基標)가

당상공가들에게 회람시킨 서장(書狀)에서는 학습원 설립의 취지가 다시금 드러나고 있다. 선제인 닌코 천황이 생전에 공가의 풍의 해이를 걱정하여 학습원을 설립하게 했으니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충근(忠勤)함에 힘쓸 것, 풍류에 빠지지 말고 충실하게 근무하며 충효의 마음가짐을 체득할 것이 권고되고 있다.<sup>36</sup>

학습원이라는 명칭은 『논어』의 첫 구절, “배우고 때때로 이를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學而時習之, 不亦說乎)의 ‘학’(學)과 ‘습’(習)에서 따온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 명칭이 채택된 경위는 분명치 않다. 이 명칭은 설립 구상 단계에서부터 존재했지만<sup>37</sup> 이것 하나만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공가들의 기록에서도 ‘학습소’라는 표현과 ‘학습원’이라는 표현이 혼용되며, 특히 무가를 상대로 하는 문서에서는 ‘학습소’의 명칭이 사용되었다. 막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대외적으로는 어디까지나 간이한 형태의, 학문을 익히는 곳이라는 뉘앙스의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다.<sup>38</sup>

36 學習院 編, 『學習院史』, 10쪽.

37 훗날 학습원의 학두 겸 봉행으로 임명되는 히가시보조 도키나가의 1842년 6월 14일자 일기에 의하면 “공가의 교육기관을 세우고 이를 학교가 아닌 ‘학습원’으로 칭하자”는 이야기를 다카쓰카사 관백과 나누고 있다. 大久保利謙, 『幕末京都の學習院』, 25쪽.

38 1849년 4월 7일, 고메이 천황은 우대신 고노에 다다히로(近衛忠熙)의 휘호(揮毫)로 ‘학습원’이라 쓰여진 편액을 하사했다. 즉 학습원은 조선이나 중국에서의 ‘사액서원’과 유사하게 천황의 ‘칙액’(勅額)을

학습원의 강의는 12월부터 다음해 1월 사이를 제외하면 연중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오전에는 강석(講釋)을 행하고 오후에는 독서(讀書)를 행했다.<sup>39</sup> 강석은 매월 3회 행하도록 규정되었고 전임 강사가 주관했으며, 일종의 의례로서의 성격을 지녔다. 수강생은 ‘청중’(聽衆)이라 칭해졌으며 15세 이상 40세 이하의 당상공가가 기본적인 대상이었다.<sup>40</sup> 15~40세 범위 밖의 청강생도 있었는데 이들은 ‘추참’(推參)이라 불렸다. 당상공가 외에 히쿠로우도(非藏人)<sup>41</sup>와 궁정에 내근(內勤)하는 관인의 자제들 중에서도 원하는 자가 있으면 출석이 허용되었으며, 학습원 서적의 관내열람도 이들에게까지 허용되고 있다. 즉 학습원은 당상공가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범위의 ‘궁정인’ 일반에 열려 있는 교육공간으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었다.<sup>42</sup>

강의 출석은 원칙적으로 희망자를 대상으로 했기에 모든 공가들에게 강제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각 강의의 개최에 임해서는 미리 참석 신청을 받아서 청중의 교명(交名), 즉 일종의 ‘출석부’를 작성하고 강석이 열릴 때 이를 바탕으로 ‘출석 체크’를 했다. 강의가 끝난 후 학무 담당관이 다카쓰카사 저택을 바로 찾아서 교명을 제출하였으며, 관백은 이를 통해 공가들의 학습 태만 여부를 점검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의 공가들에 대한 평가가 정치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분명하진 않지만, 학습원을 통해 공가의 풍의를 쇄신한다는 목표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던 관백의 자세만은 분명히 알

받은 교육기관이 된 것이다. 이는 닌코 천황 생전의 바람에 의해서라고 한다. 또한 이로 인해, 대외적으로 (즉 막부에 대해) 주로 사용되던 ‘학습소’와는 달리 ‘학습원’이라는 명칭이 조정 내부적으로 사실상 공인되었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39 여기서의 독서에는 소독(素讀)과 윤독(輪讀, 회독)이 있다. 이는 에도의 쇼헤이코(昌平饗)나 각지의 번교(藩校), 사숙(私塾) 등의 예를 좇은 것이다. 소독이란 원문을 반복해서 읽은 뒤에 책을 보지 않고 틀린 부분 없이 읽을 수 있도록 연습하는 학습법으로, 에도 시대의 일본에서는 초기 단계의 학습법으로서 교육기관이나 사숙에서의 한학 교육에 널리 보급되었다. 『世界大百科事典』 第2版.

40 개강 전 해인 1846년 10월 7일 제정된 ‘학습원 조목’(學習院條目)에는 학습원 경내에서 음주하고 잡담하는 일을 금지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역설적으로 젊은 공가 자제들이 모였을 때의 일탈적이고 자유분방한 분위기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다. 「菅葉」, 『孝明天皇實錄』 1卷 81頁.

또한 그들 대부분은 근습(近習)이었다. 근습이란 궁중에서 천황의 측근으로 종사하는 공가의 자제이다. 천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직책이기에 그 정치적 영향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1 공가 밑에서 궁정의 서무에 종사하는 직책이다. 가모 사(加茂社)·요시타 사(吉田社)·마쓰오 사(松尾社) 등 사가(社家)의 사관(祠官)이 세습적으로 맡아 왔으며 막말에는 60여 가문에 달했다. 大久保利謙, 『幕末京都の學習院』, 33쪽 참조.

42 大久保利謙, 『幕末京都の學習院』, 33쪽.

수 있다. 공가들의 태도 평가와 관련되는 것으로 역시 과시(課試)의 시행이 있다. 이는 수강생들의 학력·지식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원 강의에 출석하는 인물 중에서 성실한 자를 골라 상과(上課)·중과(中課)·하과(下課)로 등급을 나누어 표창하는 것이었다.<sup>43</sup>

학습원의 교육에서는 중국의 한학과 일본 국학의 겸수(兼修)가 표방되었다. 하지만 실태를 보면 명백히 한학, 정확히는 유학에 우선순위가 두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원의 학칙은 “성인의 도를 이수하고, 황국(皇國)의 의로운 기풍(懿風)을 숭앙한다. 성인의 경전을 읽지 않고 어찌 수신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적(國典)에 통달하지 않고 어찌 바른 마음을 기르겠는가? 이를 명쾌히 이해하고, 행함에 힘쓰라”<sup>44</sup>는 것이었다. 성인의 도와 황국의 의풍, 즉 중국의 유학과 일본 고유의 학문을 겸비할 것이 강조되고 있다.

학습원 학칙의 학문적 배경으로서는 스가와라노 미치자네(菅原道眞)가 저자로서 가탁(假託)된 위서(僞書) 『관가유계』(菅家遺誡)가 거론된다. 여기에서 주장된 ‘화혼한재’(和魂漢才)설이 일종의 혁신 사상으로서 공가와 국학자, 존왕양이파 지사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이다.<sup>45</sup> 오쿠보는 학습원에서의 국학 우선적 측면이, 메이지 신정부가 설립한 대학교(大學校)<sup>46</sup>의 “신전(神典)·국전(國典)에 의해 국체를 이해하고, 겸하여 한적을

43 1848년에 처음으로 포상이 행해졌는데 이때 상과 표창자는 없었고 중과가 6명, 하과가 15명이었다. 제2회의 과시는 1852년에 이루어진다. 그 뒤로는 5년에 1회 행해지는 것이 항례가 되었다. 아마 여기에서의 포상자 선발 과정에서 상술한 교명(交名)의 정보가 평가에 반영되고 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44 “學則之事，履聖人之至道，崇皇國之懿風，不讀聖經何以修身，不通國典何以養正。明辨之，務行之，「菅葉」，『孝明天皇實錄』1卷 81頁。 이는 학습원의 학두 겸 봉행이었던 가데노코지 스케요시와 히가시모조 도키나가 두 사람이 지은 것이다. 그리고 학습원 진주 산조 사네쓰무의 휘호로 이를 현판에 새겨 학습원 강당의 안채 동쪽 기둥에 걸어두었다.

45 이상의 사상적 배경에 대해서는 大久保利謙, 『幕末京都の学習院』, 29쪽의 설명을 참조. 공가 교육기관의 설립을 주장하는 한편 학습원 설립 이후에 학습원 서무담당인 잡상(雜掌)을 역임했으며, 『국기』(國基, 1837년 간행)의 저자이기도 한 사이다 고레사다[座田維貞, 紀維貞(기노 고레사다)]가 특히 그러한 사상의 보급에 진력했다고 한다. 여기서 사이다는 ‘황국의 도’가 우위에 서는 국학 중심적 사상을 갖고는 있었으나, 막부의 눈치로 인해 그것을 전면에서 내세우지는 못하고 유학, 특히 막부 관학(官學)인 주자학을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46 막부의 관학이었던 쇼헤이자카학문소(昌平坂學問所)를 접수하여 1869년 6월 설립했다.

강명(講明)하여 실학·실용을 이름으로써 요체로 삼는다”는 교육방침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학습원에서 ‘황국의 도’가 한학에 비해 우선시되었다는 해석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1869년의 방침에서는 명확히 국학에 우선순위가 두어져 있지만 학습원의 학칙은 그렇게 읽히지 않는다. 우선 대학교 교육방침과는 달리 ‘성인의 지극한 도를 이수하다’가 ‘황국의 의로운 기풍을 숭양한다’보다 앞서 언급된다. 그 뒤의 구절인 ‘성인의 경전을 읽지 않고 어찌 수신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적에 통달하지 않고 어찌 바른 마음을 기르겠는가?’에서도 성인의 경전(聖經)이 국전(國典=일본 서적)보다 앞서서 언급되고 있을 뿐더러, 국전에 통달해야 할 목적 또한 ‘양정(養正), 즉 ‘마음을 올바르게 닦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유학 경전을 읽는 목적이 수신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서적을 읽는 목적으로서 제시되어 있는 ‘양정’ 또한 교양을 익히고 올곧은 인성을 함양한다는 것이 직접적인 의미다. 학칙에서 국학의 학습이 한학과 대등한 위상에서 논해지는 사실 자체를 근세 초·중기에 비해 국학의 비중이 커졌다는 증거로 볼 수도 있으나, 국학이 한학·유교적 교양의 체득 ‘이상으로’ 여겨지고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 학습원 설립의 주목적은 공가의 풍의 쇄신이며 덕육(德育)을 교육 지침으로서 강조했다. 그리고 그 가장 기초적인 이념적 수단은 유학이었다. 따라서 이 시점의 학습원에서 한학이나 유학 학습은 결코 국학 학습보다 부차적인 것, 혹은 그것을 위한 수단이나 준비단계로 취급된 것이 아니었다.<sup>47</sup>

공가들에게 유학적 교양을 체득시키려는 설립 의도는, 학습원 강당에 비치된 칸막이(衝立, 쓰이타테)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는 학습원 설립의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는 관백 다카쓰카사 마사미치가 봉납한 것인데, 칸막이의 앞면에는 “성현의 책을 읽고 수신제가의 뜻을 세우고, 충효의 마음을 알

47 大久保利謙, 『幕末京都の学習院』, 29쪽. 그래서인지 최근에 이루어진 사타케(佐竹)의 논의에서는 ‘화혼한재’(和魂漢才)라는 표현 대신 ‘한혼화혼’(漢魂和魂)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당시 학습원의 교육에서 유학이 가졌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 있다. 佐竹朋子, 『学習院学問所の果たした役割』, 123~125쪽.



고, 인의의 일을 행한다”<sup>48</sup>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고 한다. 학습원에서 유학의 학습을 통해 올바른 마음가짐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교육의 목표로서 요구되었다는 사실은 ‘청중은 오륜(五倫)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지키고 수신을 근본으로 삼으며, 문예(文藝)의 일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학습원 조목의 규정에서도 드러난다.<sup>49</sup>

유학과 더불어 학습원의 교수과목으로 표방되었던 ‘국전’의 개념 또한, 오늘날 ‘국학’이라고 하면 곧바로 떠오르는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히라타 아쓰타네(平田篤胤) 류의 학풍과는 거리가 있었다. 고대 조정의 법령·의식·전례를 습득한다는 의미가 초기에는 더 강했다.<sup>50</sup> 대표적으로 학습원 조목에서 ‘강서(講書)는 유학경서·다이카령(大化令)·영의해(令義解)·당률(唐律) 등 여러 서적에 미칠 것’이 규정되고 있는데,<sup>51</sup> 여기에서 일본 서적에 해당하는 것은 역사서나 신도서(神道書) 류가 아닌, 다이카령이나 영의해와 같은 고대의 법령들이다. 게다가 이렇게 명목상 국전의 교육이 표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강 당초에는 한학의 강의만이 행해지고 있었다. 개강 다음해인 1848년 8월 9일에 쓰여진 학습원 전주 산조 사네쓰무의 일기를 보면, 기존의 ‘한어회’(漢御會), 즉 한학 강의에 더하여 일본 국전의 강의인 ‘화어회’(和御會) 또한 시행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학습원 개강 때 초빙된 한어회의 강사가 다섯 명이었던 것에 비해 화어회의 강사는 “두 사람을 부를 것도 없이” 한 명만 초빙하면 족하다고 한 것을 보면,<sup>52</sup> 사네쓰무 역시 일본 국학의 학습이 한학보다 더 큰 비중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다.

국학 강의의 실시 또한 막부와의 조율이 필요했기에 쇼시다이를 통한 절충에 성공한 이후인 1849년 2월 23일부터야 비로소 화어회가 개시될 수 있었다. 그 이후 겐지(元治) 연간(1864~65) 이전까지 한어회가 매달 세 번, 일

48 “讀聖賢之書，立修齊之志，存忠孝之心，行仁義之事。” 大久保利謙，『幕末京都の学習院』，29~30쪽.

49 「菅葉」，『孝明天皇実録』1卷 81頁.

50 大久保利謙，『幕末京都の学習院』，32쪽.

51 「菅葉」，『孝明天皇実録』1卷 81頁.

52 大久保利謙，『幕末京都の学習院』，32쪽.

본 서적 강의인 화어회가 매달 한 번 열리게 되었다.<sup>53</sup> 1849년 처음 화어회가 시작될 때 읽힌 텍스트는 법령 해설서인 영의해였으며,<sup>54</sup> 육국사의 강독은 1850년대가 되어 이뤄진다.

공자를 기념하는 석전제(釋奠祭)의 거행 또한 학습원 운영에서 유학이 강조되었음을 보여준다.<sup>55</sup> 당시에는 궁중에서 석전제를 거행하고 있었으나, 고대 조정의 석전제가 대학료나 각 지방의 교육기관인 국학(國學)에서 이뤄진 예를 좇아서 다시 학습원에서 석전제를 거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카쓰카사 관백이 제출했다. 그리하여 1848년 조정은 매년 봄·가을에 도합 두 번 행해지는 석전제 중에서 한 번을 학습원으로 옮겨 행하려는 의향을 막부 측에 전달했으나, 다음해 봄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습원은 막부의 지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재정 지출을 간소화하는 것이 당시 막부의 정책 지향이었기에 막부로서는 학습원이 기존에 없던 행사, 특히 석전제와 같은 중요한 행사를 주관하게 되는 것이 내키지 않았을 것이다. 조정은 석전이라는 ‘거창한’ 명칭을 막부가 탐탁치 않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정제(丁祭)로 대체하고 비용 또한 스스로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절충을 시도했지만, 막부의 회답은 늦어져서 결국 1849년 연말에 이르러서야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sup>56</sup> 이리하여 1850년 2월 4일 학습원에서 처음으로 정제가 거행되었고, 다음 해부터는 닌코 천황의 유지를 좇아서 봄이 아닌 가을의 정제가 학습원에서 거행되게 되었다.

이제까지 학습원의 설립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교육에서 표방된 이념

53 학습원에서 화서(和書) 강독에 출석하는 공가는 한학 서적 강독에 출석하는 공가의 반수 정도였다. 단 화어회는 출석률이 높고, 이와쿠라 도모미 등 향후 막말기에 활약하게 되는 공가 다수가 출석하고 있다. 한어회 등으로 어느 정도의 교양을 이미 익힌 공경들이 출석하는 것이 화어회였기 때문에 수적인 규모 자체는 작아지게 된 것이다. 佐竹朋子, 「学習院學問所の果たした役割」, 136쪽.

54 「菅葉」, 『孝明天皇実録』 2卷176頁.

55 석전제는 올령국가의 성립과 함께 조정의 정례행사로서 행해졌으나 올령국가 체제의 약화와 함께 쇠퇴해 갔다. 석전제의 거행은 에도 시대 이후에 다시 활발해져서 에도의 유시마 성당(湯島聖堂)에서 대대적으로 행해지게 되었으며, 교토의 궁정에서도 매년 봄·가을에 거행하게 되었다. 『国史大事典』 8, 東京: 吉川弘文館, 305~307쪽.

56 여기서도 막부의 ‘늑장 대응’이 공가의 반감을 유발하고 있다. 本多辰次郎, 「学習院創建及其沿革」, 443쪽 참조.

과 개강 이후의 운영 방침을 살펴보았다. 학습원의 학칙에서는 명목상으로 화한(和漢) 학문의 병행이 규정되고 있다. 일본 고전 교육의 필요성이 유학의 그것과 거의 동등한 위상에서 표방되는 것 자체가 시대 사조의 변화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결코 국학 쪽에 더 방점이 두어진 것은 아니었다. 유학·한학이 갖는 중요성은 여전했다. 이는 조정 상층부가 학습원의 구상 단계에서부터 교육을 통해 공가의 풍의를 쇄신하려는 목적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고, 그러한 교육방침 하에서 유용한 이념적 도구로 여겨진 것이 유학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습원에서 요구되는 학문의 성격은 공가사회 학문의 전통적인 특성이던 ‘선례의 고증·참조’와도 다르고 단순한 지식 습득이나 문예적 자질 함양도 아닌 ‘인성 교육’의 일환이었다. 이를 지탱하는 핵심 이념이자, 학습원 교육 운영에서 가장 방점이 두어진 것은 어디까지나 유학이었다. 18세기 후반 이래 존왕 사상, ‘국체’ 개념에 대한 인식이 뚜렷해진 영향으로 ‘국전’의 교육 또한 아울러 규정되었지만, 유학에 비해서는 부수적인 성격이 짙었다. 그 공식적 목적도 역시 ‘양정’이라 하여, 조정의 권위나 역사적 유서에 관한 자긍심이나 무가에 대한 우월감의 상기보다는 공가의 인성 함양 쪽에 있었다.

#### 4. 공가의 ‘정치화’와 조정 상층부의 복합적 관계

1847년 개강한 학습원이 이후 조정의 ‘정치화’ 과정에서 행한 역할은 크게 두 측면으로 나뉘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학습원에서 행해진 교육을 통해 중하급 소장공경들의 정치의식이 각성되어간 것, 그리고 학습원이라는 공간이 정치활동의 무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전자의 측면은 1858년 미일수호 통상조약 칙허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리고 후자의 측면은 양이론이 가장 비등했던 1862~63년의 정국에서 현저히 드러나고 있다. 먼저 학습원이 조정 ‘정치화’에 기여하는 이 두 가지 국면에서의 역사적 전개를 차례로 살펴본 이후, 그 요인에 대한 분석을 행하고자 한다.

## 1) 학습원과 조정의 '정치화'

학습원이 중하급 공가 정치의식 각성의 무대가 되고 있었음은 1858년 통상 조약 칙허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뚜렷이 드러난다. 조정 상층부가 내정했던 통상조약 칙허 방침에 반대하는 1858년 3월 12일의 88인 열참 사건에 참여한 공경은 학습원에 출석하던 공경과 상당수 겹치고 있다.<sup>57</sup> 1850년과 1853년 학습원에서의 한어회와 화어회에 출석한 기록이 있는 공가 39명 중 27명이 1858년의 열참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이들 중 다수가 국사서기어용(國事書記御用)이나 국사어용괘(國史御用掛) 등, 분규 연간(1861~64)에 신설된 조정의 국정 담당기구에도 참여하고 있다.

상술했듯이 학습원 내에서는 출석자들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과시가 행해지고 있었다. 그런데 1848년 첫 번째의 과시에서 포상을 받은 인물 중에는 분규 연간의 대표적인 존왕양이파 공경으로 분류되는<sup>58</sup> 오오기마 치산조 사네나루(正親町三條實愛)의 이름이 보인다.<sup>59</sup> 또한 이 1회 과시에서 여섯 명의 히쿠로우도(非藏人)가 포상을 받는데 그 중 네 명이 1858년 3월 13~14일, 즉 3월 12일 공가 88인의 열참 직후에 일어난 히쿠로우도 일당의 탄원 사건에 참여하고 있다.<sup>60</sup> 학습원에서 '모범생'으로 평가되어 포상을 받았던 인물들이 이후 조정의 '정치화' 국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존왕양이론자로 유명한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이 1859년 10월 저술한 「유혼록」(留魂錄)에는 교토의 학습원에 대한 언급이 보인다.<sup>61</sup> 다카쓰카사

57 학습원 강의에 출석한 공경과 88인 열참사건 이후 행적의 비교·대조에 대해서는 佐竹朋子, 「学習院學問所の果たした役割」, 138~142쪽의 논의를 참조했다.

58 존왕양이파/공무합체파의 이분법적 구분은 이미 仙波ひとみ, 「幕末政局のなかの天皇・朝廷」, 明治維新史学会 編, 『講座明治維新 2: 幕末政治と社会變動』, 東京: 有志舎, 2011이나 원로학자인 사사키 스구루(佐々木克)의 『幕末政治と薩摩藩』, 東京: 吉川弘文館, 2004 등 다수의 논의에서 비판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대체할 이론적 틀이 자리 잡은 것은 아니다. 추후 연구의 진전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59 女子學習院 編, 『女子學習院五十年史』, 166쪽.

60 小林丈廣, 『明治維新と京都』, 京都: 臨川書店, 1998, 29~30쪽, 34쪽.

61 “고바야시 민부(小林民部-民部는 그의 관직명이다: 인용자 주)가 말했다. 경사(京師)의 학습원은 정해진 날이 있어서 백성·조민(町人)에 이르기까지 출석하여 강석을 듣는 것이 허용된다. 강의일에는 공경이 출좌하여 강사·菅家·清家 및 지계(地下)의 유자들이 서로 섞여 있다. 그렇다면 이를 기반으로 의거하여 더욱이 집착을 더하면 얼마든지 묘책이 있을 만하다...고바야시는 다카쓰카사 가의 제대부(諸

가의 가신으로서, 조약칙허 입장을 취하던 다카쓰카사 마사미치를 칙허 반대로 돌아서게 한 고바야시 요시스케(小林良典)로부터의 전언 형식으로 학습원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강사와 중하급 공가, 당하(堂下)의 유자(儒者)가 한 데 어우러질 수 있는 학습원의 ‘개방성’이, 막말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조정에 접근하려는 지사(志士)들에게 주목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원에서 이뤄진 교육·학문이 중하급 공가의 정치의식을 각성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한 동시에 학습원이라는 ‘공간’ 또한 정치활동의 무대가 되었다. 이른바 존왕양이론이 가장 비등했던 1862~63년의 시점에 그 경향이 가장 여실히 나타난다. 한 달 중에서 학습원이 강의에 쓰이는 것은 한어회가 개최되는 3일과 화어회가 개최되는 1일을 합쳐 4일에 지나지 않는다. 즉 학습원 건물은 비어 있는 날이 많기에 강의 이외의 날에는 다른 목적을 위해 쓰이는 것이 가능했다. 학습원 건물이 구조적으로 영접이나 회담에 적절한 공간 배치를 갖고 있었다는 점도 지적된다.<sup>62</sup> 또한 학습원 건물 내부 구조에 더하여, 길 건너편의 건춘문을 통해 바로 고쇼(御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접근성도 학습원이 정치활동의 무대로서 갖는 큰 매력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리하여 1862년 정월에 조슈(長州)의 지번(支藩)인 도쿠야마(徳山)의 번주 모리 모토미쓰(毛利元蕃)가 연두(年頭) 의식을 위해 학습원에 출두한 것을 계기로, 여러 번의 재경 인사들이 학습원에서 조정 공경들과 만나서 정치적인 의사 교환을 행하게 되었다.<sup>63</sup> 이후 학습원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었다. 1863년 2월에 재경 다이묘들이 참내했을 때 전해진 조정의 영달(令達)에서는 ‘초망미천’(草莽微賤), 즉 관직에 있지 않은 재야의 미천한 무리들에게까지도 언로를 통개(洞開)하여 학습원을 통해서

大夫)로서 이번이 원도(遠島-섬 유배형: 인용자)의 죄과에 처해졌다...”(吉田松陰, 『留魂録』, 1859, 吉田庫三 編 『松陰先生遺著 第1巻』, 民友社, 1909). 강조는 인용자.

62 학습원 건물은 다이묘·공경의 면담에 쓰일 수 있는 장소[講堂]와 다이묘가 휴식할 수 있는 공간[衆の間]과 다이묘의 게라이(家來)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聽衆の次間]을 갖추고 있었다. 吉田昌彦, 『政治施設としての学習院の成立』, 68쪽.

63 高山嘉明, 『幕末期学習院をめぐる政治動向』, 60~67쪽에서는 분류 연간의 학습원의 정치적 개방을 ‘조슈 번에의 개방→제번(諸藩)에의 개방→언로통개(言路洞開)—공론정치의 장으로의 변화’라는 3단계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다.

그 의견을 수렴토록 조치되고 있다.<sup>64</sup>

분류 연간의 ‘학습원의 정치화’라는 것은 학습원이라는 건물이 정치활동의 ‘무대’로 쓰인 것이지 학습원이라는 ‘기관’ 자체가 정치적 의사결정의 주체·중심이 된 것은 아니다.<sup>65</sup> 그리고 존왕양이 과격파가 일소된 이후 학습원 건물이 정치활동의 무대로 쓰이지는 않게 되나 교육기관으로서의 학습원은 계속 유지되었다. 1863년 8월 18일의 정변으로 양이파 주요 공경들은 교토에서 추방되었다. 고메이 천황이 “이제까지는 (조정에서 발해진 칙령들이 정말 천황의 뜻인지) 진위가 불분명한 면이 있었지만, 8월 18일 이후에 나오는 것은 모두 참된 것”<sup>66</sup>이라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천황과 조정이 온건 지향으로 돌아섰음을 상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이후에도 기존에 양이론자들의 ‘요람’이 되었던 학습원을 폐쇄하기는커녕 되레 강석 일수를 늘리는 조치가 단행된다. 1864년 2월에 나온 신년 개강의 취의서(趣意書)에서는, 고카(弘化) 연간(1844~48) 이래 학습원을 세워 강석을 행해 왔지만 “온고지신(溫故知新)의 공(功)”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림 6) 닌코 천황의 뒤를 이은 고메이 천황. 메이지 천황의 부친

64 “주상께서…더욱이 또 초망미천에게도 언로를 통개하신다고 하셨습니다…각자 충언을 감추지 말고 학습원에 참상(參上)하여 어용괘(御用掛)의 사람들에게 진언하도록 분부하셨기에 난잡한 일이 없도록 잘 이해할 것…위와 같이 분부하셨기에 뜻있는 무리는 의견을 말해야 한다는 뜻을 의주(議奏)인 히로하바(広幡) 대납언이 문서로서 통고하시어 벽에 써붙이게 했다”(『非藏人日記』, 文久三年二月二十一日, 『大日本維新史料稿本』; 吉田昌彦, 「学習院建言制度の成立と「言路洞開」」, 47쪽에서 재인용). 교토에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심지어 ‘테러’까지 빈발하던 상황 속에서, 과격세력의 직접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완충의 무대로서 학습원이 선택된 측면도 있다. 吉田昌彦, 「学習院建言制度の成立と「言路洞開」」.

65 大久保利謙, 「幕末京都の学習院」, 42쪽. 조정이 ‘최고정책심의결정기관’으로 부상하는 와중에서 궁중의 소어소(小御所)가 번주와의 직접적 의례를 위한 천황 고유 공간이었다면, 학습원은 조정의 역직자(役職者)가 번 세력과 ‘직무에 관련된(役向き) 의례’를 행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와 분리되어 설정된 것이라는 논의도 있다. 吉田昌彦, 「政治施設としての学習院の成立」, 89쪽.

66 「定功卿手録」 文久三年八月二十六日, 『孝明天皇実録』 5卷 859頁. 이는 정변 직후인 1863년 8월 26일에, 참내한 아이즈 번주 마쓰다이라 가타모리(松平容保) 등에게 건넨 천황의 신한(宸翰)이다.

천황의 각별한 뜻(格別の勸慮)에 의거하여 강석 일수를 3일에서 6일로, 화어회(和御會)도 1일에서 3일로 늘리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sup>67</sup>

따라서 이 시점에서 단행된 학습원 강석 일수의 확대는 이른바 중하급 소장공경 중심의 존왕양이파와 조정 상층부의 지향이 학습원에서의 공경들의 ‘근학’(勤學)을 권장한다는 면에서 같았음을 보여준다. ‘교육기관’으로서의 학습원이 아닌 학습원 건물이라는 ‘공간’이 각 번의 재경세력 등에 의해 정치활동의 무대로 쓰인 것이라는 인상이 강했기에, 8월 18일 정변 이후의 조정 상층부에서도 ‘정치활동의 공간’으로서의 학습원과 ‘교육기관’으로서의 학습원은 별개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정 상층부는 분류 연간 이후에도 ‘교육기관’으로서의 학습원에 대해서는 공가사회 일반에 대한 ‘교화·통제의 도구’라는 인식을 유지했던 것이다.

이렇게 조정의 ‘정치화’ 과정에서 학습원이 행한 역할은 교육을 통한 공가들의 정치의식 형성과 학습원 건물의 정치무대화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중 후자의 측면은 비교적 단순한 문제이기도 하며 선행 연구에서도 그만큼 명확히 규명되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반대로 전자의 측면, 즉 학습원을 통해 공가들의 정치의식이 뚜렷해졌다는 사실은 학습원의 중요한 역사적 의의로서 강조되어 왔으면서도 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충분히 행해지지 않았다고 보인다. 특히 ‘학습원에서의 학문·교육이 정치의식에 미친 영향’과 ‘처음 학습원을 설립한 조정 상층부의 의도’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 구체적으로 행해지지 않은 채, ‘학습원이 공가의 자각을 촉진했다’는 단순한 주장이 반복되어 왔다. 하지만 관백을 비롯한 조정 상층부의 학습원 설립 의도·이념과 실제 학습원이 공가의 교육과정에서 행한 영향력 사이의 관계는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하에서는 학습원의 운영에서 공가사회의 ‘정치화’를 촉진시킨 요소들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고, 특히 그것들이 조정 상층부의 설립의도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나름대로의 설명을 행하려 한다.

67 「言渡」元治元年三月二十日,『孝明天皇実録』5卷 908頁.

## 2) '정치화'를 촉진시킨 요소들

학습원을 통해 공가들에게서 정치의식을 촉발시키려는 의도는 문자화된 사료들에서는 표출되지 않는다. 공식적인 언설들에서 거듭 표방되는 조정 상층부의 학습원 설립 목적은, 젊은 당상공가들의 풍의를 바로잡는다는 것이다. 내셔널리즘적 의도로 해석되곤 하는 국학 교육조차도, 공식적으로는 '마음을 옳고 바르게 닦는'(養正)다는 '인성 교육'의 목적이 내세워지고 있다.

설립 당시 조정 상층부는, 학습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소장 공가들이 기존 조정체제에 잘 따라오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닌코 천황이나 다카쓰카사 관백 등은, 조정의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중하급 공가들의 발언권이 확대되거나 하물며 조정이 막부를 대신하여 일본의 정국을 주도하게 되는 상황의 도래를 학습원 설립의 목표로서 상정하고 있지 않았다. 학습원에서 교육받은 공경들이 열참과 같은 방식으로 조정 상층부의 의사결정에 저항하는 등의 사태는 결코 설립 단계에서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조정 상층부의 목표와 실제 학습원이 담지하게 된 역할이 일치하지 못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학습원의 어떠한 요소들이 조정 상층부의 의도와는 달리 중하급 공가사회가 '정치화'하는 데 기여하게 되는 것인가.

우선 첫 번째로 당시는 대외적 위기의식이 고조되던 시기다. 대외적 위기의식은 학습원의 운영과 맞물리며 조정의 동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학습원 설립이 발의되는 1842년은 아편전쟁의 소식이 일본에 전해져 조야에 충격을 주었던 때다. 막부는 일찍이 1825년에 이국선타불령(異國船打拂令)을 내려 일본 연해에 접근하는 외국 선박은 무조건 격퇴시키도록 했으나, 아편전쟁의 정보를 접한 후에는 상륙한 외국 선박에게 물과 쌀감을 주어 내보내라는 신수급여령(薪水給與令)으로 방침을 전환하는 등 서양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에 민감히 반응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공가사회의 상층부는 주요 옹변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이들로부터 대외위기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었다. 섭가인 고노에(近衛)가와 사쓰마(薩摩)의 시마즈(島津)가의 관계, 그리고 앞에



서 언급한 다카쓰카사 마사미치와 미토의 도쿠가와 나리아키의 관계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sup>68</sup> 이 외에 중하급 공가들 또한 교유 관계에 있던 지식인을 비롯하여 외부 사회와 접촉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기에, 대외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은 공가사회 일반에도 공유되고 있었을 것이다. 아편전쟁 이후 조정의 대외문제에 대한 관심의 상징으로서 1846년 8월 29일 막부에 내려진 해안방어[海防]의 칙서<sup>69</sup>를 들 수 있다. 8월 29일은 상술한 학습원 건물 지진제가 행해진 바로 다음날이다. 즉 아편전쟁 이후 대외문제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학습원 설립을 비롯한 조정에서의 학문의 활성화는 시기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대외적 위기의식이 학습원의 운영과정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석전제의 거행에서 나타난다. 석전제에서는 매해 두 개씩 시제(詩題)가 선정되고 논의좌(論義坐)가 부설되어 논의(論義)가 행해지는데, 폐리가 내항한 1853년의 석전제에서는 ‘만이솔안’(蠻夷率眼)이 시제로서 선정되고 있다.<sup>70</sup> 이미 아편전쟁 이래 서양 세력의 접근에 대한 정보가 유통되던 것에 더하여, 폐리 내항을 미증유의 ‘신주의 대사’(神州之大事)<sup>71</sup>로 받아들여 위기의식이 더욱 증폭된 것이 학습원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중하급 공가들의 의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두 번째로, 학습원의 설립으로 인해 당상공가들이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는 장이 형성된 것 자체가 정치의식 고조의 기반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학습원 설립 이전에도 상층 공가들은 강사를 초빙하여 자제를 교육시키고 있었고, 중·하급 공가 또한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았지만 교육에 전혀 투자하지 않던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18세기 말부터는 여러 공가들

68 그 외에 산조(三條) 가와 도사(土佐) 번의 야마우치(山内) 가, 나카노인(中院) 가와 (나가사키 경비를 담당하던) 사가(佐賀) 번의 나베시마(鍋島) 가의 관계도 있다.

69 “근년에 이국선이 때때로 나타나서…무문(武門)의 각 사람들은…신주(神州)의 하근(瑕瑾)이 없도록 힘을 써 지휘하여 주상의 마음이 편안하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実萬公手録』 弘化三年八月二十九日御沙汰書, 『孝明天皇実録』 1卷69頁. 조정이 정부에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이제까지 매우 드물었던 일이다.

70 本多辰次郎, 『学習院創建及其沿革』, 454쪽.

71 『孝明天皇紀』의 1853년 기사에 매우 빈번히 등장하는 표현이다.

사이에서 학습회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강사를 초빙하는 개인적 교육은 기본적으로 강사와 피교육자 간의 쌍무적 소통에 한정된다. 사적인 형태의 학습회 또한, 성향이 맞는 소수의 사람끼리 이뤄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폭넓은 의견이 교환되기는 힘들다. 그렇기에 학습원의 설립은 공가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한 ‘교육의 전당’이 생겨난 것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학습원에서는 단지 공가사회의 일원에 속한다는 것 이외에 반드시 이념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인물들이 학문을 매개로 접촉할 기회가 생겨난다. 비록 학습원의 강의가 기본적으로 강사에 의한 ‘강독’의 형식을 띄며 막부의 감시와 통제가 있었다고 해도,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있는 교육의 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의견교환의 기회가 생겨나지 않을 수 없다. 대기근과 재정문제 등으로 체제 내부의 모순이 현저해졌으며 열강의 접근으로 대외적 위기감까지 고조되던 덴포 연간 이후의 시대 상황을 고려하면, 그러한 공간에서 정치현안에 대한 정보와 의견교환이 활발히 이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세 번째로, 학습원 강사들의 출신성분에서도 공가 정치화 촉진의 요소를 엿볼 수 있다. 1846년 6월 9일 학습원의 수업을 담당할 강사들이 처음으로 임명된다.<sup>72</sup> 이들은 데라지마 단고노스케(寺島丹後介), 마키 하쿠호(牧百峰), 오자와 마사고로(大澤雅五郎), 나카누마 류조(中沼了三), 오카다 로쿠조(岡田六藏)였다. 데라지마는 구조(九條) 가의 가신으로 주자학을 신봉했으며, 1850년경까지 강석을 맡았다. 마키는 라이 산요(賴山陽)의 문인으로 역사의 강석에 뛰어났다. 나카누마는 오키 섬 출신으로 교토에 올라와서 유학을 배웠는데, 아사미 게이사이(淺見綱齋)의 학통을 잇는 스즈키 조헤이(鈴木恕平)의 가르침을 받았다. 나카누마는 원래 주자학을 신봉했으나 후에 양명학으로 돌아섰고 ‘국사(國士)풍’의 기질이 있었다고 평가되며 존왕양이파 향사(郷士)들과의 연계도 가졌던 등, 학습원 강사진 가운데서도 특히 눈에 띄는 인물로

72 이하 강사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大久保利謙, 「幕末京都の学習院」, 32~33쪽; 佐竹朋子, 「学習院學問所の果たした役割」, 132쪽 참조.

평가된다. 오자와는 주자학자로서 나카누마와 같은 스즈키 조헤이 문하에서 교육받았으며, 1863년 7월 27일 강사직을 사임했다. 오카다는 고학(古學)을 익힌 경력이 있었는데, 병으로 강의를 거의 하지 못하고 사임했다.

이들은 대개 교토에서 이름이 알려진 유자였으며 현실 정치에도 식견을 갖고 있었다. 1853년 페리 내항 이후 오자와·나카누마·마키는 조정에 정치적 견해를 피력할 기회를 얻기도 한다. 특히 『산조 사네쓰무 일기』에 의하면 오자와는 사네쓰무에게 이국선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으며, 1855년에는 그 아들인 사네토미의 시강으로 고용되어 산조 가를 드나들며 사네쓰무에게 정책 건의를 하기도 한다. 1858년에는 역인(役人)들뿐만 아니라 ‘학원’(學院)에서 가르치는 유자들에게 의견을 구하라는 조정의 조치도 나오고 있다.<sup>73</sup> 즉 학습원의 강사로 초빙된 인물들은 단순히 강의를 행하는데 머무르지 않았다. 조정은 페리 내항이나 통상조약 칙허 문제로 정치적 역할을 요구받게 되고 있었다. 그러나 조정은 오랫동안 현실정치에 참여했던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에 학습원의 강사로서 공가사회와 연결되어 있던 이들이 정치적 조언자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었고, 이들은 조정이나 공가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고 평가된다.<sup>74</sup>

1849년 2월에 시작된 화어회의 강사로는 고이즈미 쇼조(小泉將曹)가 임명되었다. 그는 산조니시(三條西) 가에 출입하던 사람이었다. 이어서 1852년 7월부터는 세타 쇼부(勢多章武)가 강사로 임명되었다. 세타 또한 덴포 연간부터 공가의 학습회에 참가하며 인연을 쌓은 전력이 있던 인물이었다. 1859년 5월부터 아마자키 안사이의 학풍을 좇는 시모고료(下御靈) 신사의 신관 인베 사다노부(齋部定信), 그리고 천황릉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던 다니모리 요시오미(谷森善臣), 히요시 신사의 신관인 주게 시게쿠니(樹下茂國) 등이 채용되었다. 다니모리 역시 산조니시 가에서 출사하던 사람으로서 덴포 후기부터는 산조 가에서 국학의 시강을 맡고 있었으며, 1854년 무렵에는 고대

73 「三條実万手録」; 佐竹朋子, 「学習院学問所の果たした役割」, 133쪽.

74 佐竹朋子, 「学習院学問所の果たした役割」, 133쪽.

천황릉에 대한 저작을 집필하기도 했다.

이처럼 학습원의 강사들은 대개 강경한 충절론·척패론(斥霸論)으로 유명한 아사미 게이사이 학파의 맥을 이은 인물들이었으며, 천황가를 숭모하는 존왕 사상에 경도되어 있거나 존왕양이파 지사들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학습원에 출석하며 이들의 사(師恩)을 입었을 공가의 다수가 통상조약 칙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출하게 되는 이유는 여기서 잘 설명되고 있다.

정치화의 촉진 요소 중 네 번째는 위에서 언급한 강사의 학맥과도 직결되는 요소로서, 학습원에서 교육되는 내용이 공가들의 ‘치자’ 의식 자각과 정치의식 형성에 일조했다는 점이다. 우선 상술했듯이 학습원의 교육에서는 유학의 중시가 표방되었고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된 것은 주자학이었다. 언뜻 막부의 관학인 주자학이 공가의 교육기관인 학습원에서도 중심이 되었기에 학습원이 막부의 교육 방침에 복종해야 했던 결과로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이 유학 교육과정에서 실제로 전수되었던 학설은 위의 강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안사이-게이사이 학파의 것으로 보인다. 국학 교육의 경우 처음에는 고대의 법령서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고대 조정의 정사인 『일본서기』나 『속일본기』 등이 학습되던 점도 중요하다.

게이사이 학파의 주자학은 명분론과 군주에 대한 충절을 특히 강조한다. 이는 천황의 권위에 대한 숭앙에 더하여, 무력에 근거한 막부의 위광·패도가 갖는 정당성에 대한 부정으로 연결될 소지가 크다. 게이사이의 스승인 아마자키 안사이는 그 생전에 유학과 신도를 습합시켜 천황가에 대한 존숭을 강조하는 스이카(垂加) 신도를 창안했으며, 이는 호레키 사건의 불씨가 된 바 있다. 같은 호레키 사건에서는 안사이의 신도설에 더하여, 군주에의 충절을 강조한 게이사이의 『정헌유언』(靖獻遺言) 등이 그 이념적 기반이 되기도 했다.

한편 육국사의 학습은 율령시대 천황과 조정의 위상을 상기시켜 천황의 권력을 축소시킨 섭관가에 대한 반감으로 연결될 논리적 여지를 갖고 있다. 공경들이 학습원의 육국사 학습에서 율령국가 퇴조와 섭관정치로의 이행,

무가정권의 대두라는 역사를 어떻게 이해했으며 그것이 ‘현실의’ 섭관가나 막부에 대한 인식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자료는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막말 중하급 공가의 ‘정치화’ 현상, 특히 이들이 천황과 연계되고 천황의 뜻[叡慮]의 충성스런 대변자로서 자처하는 현상에 사상적 배경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학습원에서 익힌 게이사이 학과의 주자학이나 육국사의 학습으로부터 찾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정치화’ 축진의 마지막 요소로서 거론할 만한 것은 학습원의 운영에 속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학습원 설립을 발의하고 그 교육과정을 최종적으로 통제하던 조정 상층부의 의향이 중하급 공가의 정치의식 형성과 맺고 있던 복합적인 관계다. 당시에 이르면 조정 상층부에도 존왕 사상이 널리 수용되고 있었다. 덴포 후기 무렵부터 초대 천황인 진무(神武)를 중시하는 사상이 다카쓰카사 관백이나 산조 사네쓰무 등으로부터 제기되고 있었으며, 1853년 말에는 조정에서 진무 천황릉의 보수가 계획되기도 했다. 다카쓰카사 관백이 학습원의 교재로서 『일본서기』, 거기에 더하여 『고사기』까지 기부했다는 사실도 앞에서 보았다. 즉 고대 조정의 역사를 상기하려는 분위기가 학습원에서의 화학회 개최, 새로운 학풍을 도입한 강사진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전개되고 있던 것이다.<sup>75</sup> 존왕 사상의 이론적 근거로서는 18세기 말에 미토 번에서 등장한 이른바 후기미토학(後期水戸學)의 학풍으로부터 나온 『신론』(新論) 등의 저술이 대표적인데, 덴포 연간 이후 조정은 혼인 등을 통해 미토와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당시를 다루는 『천황실록』에서는 미토 번 인사에 의해 저술·편찬된 존왕론적 관점이 투영된 것으로 짐작되는 서적을, 역시 같은 미토 번 관계인물들이 조정에 헌상하는 기사들이 보이고 있다.<sup>76</sup> 미토와의 관계 등을 통해 존왕 사상—당시 일본의 정치체제를 생각

75 佐竹朋子, 「学習院學問所の果たした役割」, 135쪽.

76 도쿠가와 나리아키의 형으로 사누키(讃岐) 다카마쓰(高松) 번의 9대 번주가 된 마쓰다이라 요리히로(松平頼恕)로부터 『역조요기』(歷朝要紀)가 헌상되었다는 1837년 9월의 기록(『仁孝天皇実録』 3卷 800頁), 도쿠가와 나리아키로부터 『야시마문조』(八洲文藻)가 헌상되었다는 1843년 5월의 기록(『仁孝天皇実録』 4卷 995頁)이 있다. 이 시기를 다루는 『실록』에 여타 번으로부터의 저작 헌상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하면 기득권층의 이데올로기라기보다는 ‘변혁 사상’·‘위험 사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보다 큰—은 섭관가 등 조정 상층부에까지 일반적으로 수용되어 갔던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섭관가가—그들 자신의 기득권을 침해할—조정 체제 변혁이라는 목적을 갖고서 존왕 사상을 수용했다고는 보기 힘들다. 당시의 조정 상층부가 존왕 사상의 함의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전체적인 시대 분위기가 많이 변해 있었다는 것이다. 18세기 중반의 호레키 사건 당시 존왕론의 색채가 짙은 스이카 신도설이 천황가와 소장공경층에 유입되는 것에 대해 관백·섭관가는 매우 민감히 반응했다. 그러나 1840년대의 관백은 그 스스로가 존왕 사상을 상당히 내재화한 듯이 보일 뿐더러 학습원 교육을 통해 중하급 공경들 사이에 그것이 퍼져나가는 것을 사실상 돕고 있다.

당시의 막부가 그랬듯이, 섭관가 또한 존왕론·천황가에 대한 존승을 반드시 기존 체제에 대립되는 사상으로만 읽어내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막부와 조정은 정통성의 문제에서 대립적 존재였다는 인상이 강하나, 실제로는 18세기 후반 이래 막부가 천황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일본을 통치하는 것이라는 ‘대정위임론’(大政委任論)이 확산되어 있었다. 따라서 같은 시기 이뤄진 천황 권위 상승과 비례하여, 막부가 천황의 권위를 존중한다면 그 정통성은 이론적으로는 되레 더 견고해질 수도 있었다. 섭관가 또한 비슷한 논리적 이해를 통하여 존왕 사상을 수용했을 수 있다. 섭관가에게 존왕 사상은 반드시 기존 조정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부정이나 자신들의 기득권 축소로 연결되지 않으며, 되레 천황가와 천황 중심적 국체의 존승을 표방하는 한 조정 내부에서도 섭관가가 큰 영향력을 갖는 기존 체제의 정당성이 유지·강화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었다.

즉, 18세기 후반 이래의 사조 변화로 1840년대 시점의 섭관가는 천황의 상승된 권위를 받아들이는 데 별다른 저항이 없었으며, 오히려 존왕론을 적극적으로 내재화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따라서 조정 상층부는 통상조약 체결 문제 이후와 같이 중하급 공경들의 정치적 주장이 이미 한껏 상승해 있

던, 천황의 권위에 직접적으로, 즉 섭관가를 거치지 않고 연계될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실패했다. 학습원은 조정 상층부가 애초에 표방했던 공가의 ‘풍의 쇄신’이라는 목표를 사전적 의미에서는 실현시켰을지 모르나 동시에 중하급 공가의 존왕론 수용과 정치의식 형성의 장이 되어갔기에 섭관가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던 근세 조정의 권력 구조에 일종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 5. 학습원과 공가의 ‘정치화’가 갖는 의미

천황이나 관백 등, 처음으로 학습원 설립을 발의하고 추진한 조정 상층부의 의도는 결코 중하급 공가의 정치의식을 각성시키고 막부에 대항하는 것에 있지 않았다. 조정 상층부가 학습원을 설립하면서 내세운 목적이나 교육 이념에서는 공가사회에 대한 ‘풍의 쇄신’, 즉 인성의 교화가 전면에 거론되고 있었다. 이는 정치적으로 종래의 조정체제가 급격히 변혁되기보다는 그것이 공고히 유지되기를 바란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공가가 접촉하는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성격부터가 정치의식의 형성을 유발할 여지가 다분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표방된 이념의 포장을 한 꺼풀 벗겨내어 강사의 학맥이나 학습 내용, 의식의 거행 등 학습원 운영 과정의 구체적인 면면을 보면 젊은 공가들이 존왕론·양이론의 영향으로 ‘정치화’할 요인이 다수 제공되고 있다. 게다가 이미 다카쓰카사 관백을 비롯하여 중하급 공경의 풍의 쇄신을 목표로했던 조정 상층부 스스로부터가 미토와의 관계 등을 통해 존왕 사상을 깊이 수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학습원 설립을 통한 교육의 독려는 중하급 소장공가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관심, ‘치자’로서의 의식의 각성을 더욱 촉진하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의 시대적 배경으로서는 대기근이나 재정 문제와 같은 대내적 모순과, 아편전쟁 이후 본격화한 대외적 위기상황에 대한 관심이 자리하고 있었다.

학습원에 출석하며 학문을 익힌 중하급 공경들은 1858년 통상조약 칙허 문제를 계기로 섭관가 중심의 근세 조정 체제에 본격적으로 도전하게 되었다. 학습원은 이들 존왕양이파 중하급 공경들과 연계를 꾀하는 제 번(諸藩)의 지사들에게 열린 정치적 활동의 무대로도 되어갔다. 학습원이 막말 조정에서 행한 역할은 공가 일반의 인성 함양·풍기 쇄신이라는 설립 당초 목적을 한참 넘어섰으며, 이는 학습원을 설립할 당시의 조정 상층부가 예측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 후반 이후 각 번에서 번교(藩校)가 활발히 설립되는 등, 일본사회 전체적으로 유학을 중심으로 한 학문과 교육의 보급도가 이전 시대에 비해 현저히 향상되었다. 학습을 매개로 형성된 여론·결사는 중하급 무사층에게서 정치의식의 각성이라는 효과를 일으키며 막말 격동의 토대가 되었다.

본문에서 다룬 근세 후기—막말 조정에서의 학문의 발전사 또한, 구체적 양상의 차이는 있지만 무가사회에서의 패턴과 기본적으로 같다. 이는 조정과 공가사회가 정치권력으로부터는 유리되어 있었지만 사회 전체의 흐름과 유리되어 있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막말의 천황과 조정은 단순히 존왕양이파 지사들의 주목을 받게 됨으로써 부상한 것이 아니라 이미 폐리 내향 이전부터 그 토대가 내부적으로 마련되고 있었다. 그리고 공가의 교육기관인 학습원은 그 과정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던 것이다.



지난 1970년 일본으로 반환되었다. 전쟁 당시 프로파간다 매체였던 사실로 인해 수집된 후에는 그것의 처분에 대한 GHQ의 부심, 오스트레일리아와 네덜란드의 이관 요구 등이 있었지만, 결국 미국에 이송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미국 이송의 이면에는 전쟁화의 일반 공개를 꺼린 전쟁화 제작 화가들의 의도에 의한 '봉인'의 측면이 있었던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미국으로 이송된 후 육군성과 공군성에 이관되었던 일본의 전쟁화는 1960년대에 일본인에 의해 '발견'되어 일본으로 반환되기까지 수 년이 걸렸고, 그 배경에는 냉전구조의 심화 속에서 동맹국이 된 미일관계가 있었다. 반환이 논의되는 과정에서는 '역사적 기록', '전쟁명화' 등의 수사가 동원되어 미국 이송 당시와는 판이한 인식이 제기된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반환 후 4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전쟁화의 공개가 지체되고 그것에 관한 연구 또한 미진하여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으나 본격적인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주제어: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 전쟁화, 프로파간다, 전리품, 반환, GHQ

### 막말 조정의 학습원과 공가사회의 '정치화' | 김형진

투고일자: 2013. 6. 18 | 심사완료일자: 2013. 6. 27 | 게재확정일자: 2013. 7. 31

이 글은 1847년에 개교한 공가의 교육기관인 학습원(學習院)을 다루는 논이다. 학습원은 막말(幕末) 조정의 정치적 부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학습원이 조정의 '정치화'에 행한 역할은 먼저 학습원에서의 '교육'이 공가사회의 '정치의식' 형성을 촉발한 것, 그리고 학습원이라는 '공간'이 정치활동의 무대로 이용된 것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지만 특히 전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학습원이 공가의 정치의식 형성과 조정의 부상에 기여했다고 일률적으로 막연히 평가될 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과 요인을 통해 이뤄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불충분하다.

학습원의 설립 이념과 특히 초기의 운영 실태를 보면, 조정 상층부가 학습원을 설립한 목적은 중하급 공가의 풍의(風儀) 쇄신이었으며, 이에 따라 유학에 중점을 둔 '인성 교육'의 방침이 관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학습원 강사의 대다수가 아사미 게이사이(淺見綱齋)의 학설과 같은 강경한 존왕론을 이어받은 인물들이었던 등의 이유로, 실제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조정 상층부의 의도와는 달리 중하급 소장공가들의 정치의식이 고양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조정 상층부 스스로조차도 1840년대의 단계에 오면 이미 존왕 사상을 깊이 내재화하고 있었기에 학습원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학습원은 '인성 교육'이라는 조정 상층부의 초기 의도를 넘어, 중하급 소장공가들이 1858년 미일수호통상조약에 문제를 제기하고 섭관가 중심의 근세 조정 체제에 반기를 드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주제어: 학습원, 조정, 공가, 천황, 막말, 존왕 사상

paintings were returned to Japan further research on remains to be done these paintings still.

• **Keywords:** Asia-Pacific War Era, Japanese War Painting, propaganda, booty, return, GHQ

### **Gakushuin and the ‘Politicization’ of Japanese Imperial Court** | KIM Hyung Jin

This article is a study about *gakushuin* [学習院], the educational institution for the nobles of the Japanese imperial court established in 1847. The existing research has uncovered that *gakushuin* played a crucial role for the political emerging of the imperial court at the dawn of Japan’s modernization.

The role of *gakushuin* within the context of ‘politicization’ of imperial court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First, the academic activities in the *gakushuin* aroused ‘political consciousness’ among court nobles. Second, its ‘space’ was used as the stage for politics. Yet at least the former role of *gakushuin* as the medium for the ‘politicization’ of the imperial court has only been uniformly and vaguely evaluated, and it lacks detailed examination of its cause and the process. The *gakushuin* was founded in order to ‘reform the morals [風儀]’ of young middle- and lower class nobles. Therefore, the policy of ‘personality education’ whose disciplines were based especially on Confucianism was strongly reinforced. But because many of the educators at *gakushuin* were heavily influenced by a vigorous *Sonnō* ideology like that of Asami Keisai, in the actual course of study, the ‘political consciousness’ of young court nobles did not reflect the initial purpose of the court education. In addition, since the leaders of the court in the 1840s had also been deeply influenced by *Sonnō* ideology, they were not particularly alarmed by this growing trend in court education.

As a consequence, *gakushuin* overstepped the early goal of court leaders, and eventually led to the revolt against ‘early modern imperial court system’ by the middle- and lower class nobles when an issue came to light regarding 1858 US-Japan Treaty of Amity and Commerce.

**Keywords:** *Gakushuin*, Japanese Imperial Court, court nobles (*Kuge*), Emperor of Japan (*Tennō*), *Bakumatsu*, *Sonnō* ideology